

얼굴 모습의 변화

얼굴은 뇌(腦)에 가깝다. 그리고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얼굴은 모든 병의 스크린이다. 때문에 얼굴에는 병색(病色)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 얼굴이 당기는 경우

이른바 유행성이하선염(耳下腺炎)으로 귀밑에 있는 이하선이 붓는 수가 있다. 특히 젊은 남자에게 음낭염(陰囊炎)을 일으키는 수가 있고 이것이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액선의 분비구가 막히는 경우 얼굴이 당기는 수가 있다.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나 물로서 입안을 씻으면 낫는 수가 있다.

충치가 있으면 치수염을 일으켜 치통을 가져 오고 얼굴이 당긴다.

□ 얼굴이 붓는 경우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오르면 먼저 신장병을 생각해야 한다. 오줌의 변

화와 혈압의 변화를 조사하여 진단하는데 신장병임이 확인되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상당기간의 안정과 식사요법이 필요하다.

기타 일과성으로 얼굴이 붓는 경우는 옆드려 자거나 월경 또는 홀몬관계로 붓는 수도 있다. 이럴때는 오줌 검사를 해도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대로 두어도 좋으나 붓는 것이 오래 계속되면 이뇨제를 사용하면 곧 낫는다. 점액수종이나 홀몬질환으로 얼굴이 붓는 수도 있다.

□ 얼굴이 살이 찌는 경우

홀몬이상으로 얼굴에 살이 찌는 것 보다는 살이 쪼 때문은 얼굴모양이 변하는 경우이다. 비교적 단기간에 얼굴모양이 변하면 먼저 홀몬이상을 생각해야 한다.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부신등에 이상이 없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뇌하수체질환에는 성장호르몬의 이상분비를 가져오는 것이 있고 어린이라도 성장함에 따라 거인증(巨人症)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어른에게는 코가 커지거나 턱이 커지거나 손발이 커지는 수가 있는데 이때도 얼굴모양이 변한다.

치료를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을 많이 사용하면 약의 부작용으로 얼굴모양이 달덩어리처럼 둥글게 되는 수도 있다.

□ 얼굴이 여위는 경우

얼굴이 여위기 보다 온몸이 여위기 때문에 얼굴도 여위고 모양도 변하는 수가 많다. 특히 당뇨병이 중증일때 여위게 된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다.

유행성근위축증(流行性筋萎縮症)의 일종으로 안면전갑상막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굴뿐만 아니고 어깨나 팔의 근육도 줄어들다. 사춘기에 발병하기 쉽고 남자들에게 많다.

그리고 얼굴의 한쪽만 여위는 병도 있는데 자율신경의 이상에서 오는 것이다.

□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얼굴의 경련은 한쪽에만 나타나는 수가 많다. 경련의 일부로 눈을 뜰수 없는 수도 있다. 그원인은 여러가지

이나 자연히 낫는 수도 있다.

경련이 오래 계속될때는 안면신경을 주사로 마비시켜 멈추게 할 수 있다.

안면신경이 마비된 쪽이 반대편으로 당겨져 얼굴이 비뚤어지는 수도 있다. 또 마비된 쪽에 다시 경련이 일어나는 수도 있다.

파킨슨병에 걸리면 안면근의 활동이 작아서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파상풍의 경우는 입을 열수가 없어 쓴웃음을 하고 있는 얼굴을 하게 되는데 본인에게는 여간 고통스런 일이 아니다. 한시간이라도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토막지식

텔레비전은 누가 발명했나

텔레비전의 발명은 누가 일시에 한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독립된 여러가지 발명품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음극선관(陰極線管)」(一名: 부라운관)은 1897년 「칼·페루디난드·부라운」(1850~1918)이 완성했으나, 이것이 「전기적화상(電氣像)」으로 결부되게 된 것은 1907년 러시아의 「보리스·로징」에 의해서였다.

텔레비전 송상관(送像管)의 특허는 이미 1923년 12월 29일, 「우라지밀·코스마·쓰보리킨」(1889년생의 러시아인이었으나 1924년 미국에 귀화)이 「제 2141059호」로 제출되었다. 최초의 송수상(送受像)은 1925년 6월 13일, 「워싱턴」에서 실행되었는데 이때의 영상은 아름다운 풍차였다고.

그리고 이것이 최초로 방송이 된것은 1936년 11월 2일 영국 런던의 「알렉산더·파레스」에서였는데, 당시 영국에는 100셋트의 TV수상기가 있었다.

독일의 「베르린·윌트스레벤·텔레비」 방송국에서는 1936년 4월이었다.